

# 삶의 철학은 없고 요령만 가득한 '처세서'들

경쟁에 이기기 위한 방법론만 기술...우리 상황에 맞는 '처세론'이 돼야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욕구에 힘입어서인지 요즘 웬만한 서점에는 '처세' 코너라는 널찍한 자리를 따로 마련해야 할 만큼 많은 처세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 책은 대상 독자나 다루고 있는 내용에 따라 직장인들의 비즈니스 처세술, 여성들의 성공전략, 심리파악법, 인간교제술, 화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복잡한 인간관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책들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과연 사람들을 성공의 길로 이끄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설사 성공적인 인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이 올바른 의미의 성공인가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다.

## 알팍한 요령제시에 급급

이러한 비판은 이 책들이 보여주는 몇가지 경향에 근거한다. 최근 서점의 판매대를 메우는 처세서들이 보여주는 첫번째 경향은 "철학은 없고 요령만 있다"는 말로 집약된다. '101가지 전략 노트' '백팔가지 지혜' '10가지 조건' '250가지 길' '7가지 습관' '지혜 14계' '187가지 체크리스트' 등 성공을 위한 방법론을 몇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 이들 책의 짧은 경구 속에 삶의 참된 의미나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대한 어떠한 철학이나 사유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이들 책이 파악하는 세상은 전쟁터다. 따라서 여기서 비롯되는 모든 인간관계는 전장에서 만난 적이고 그를 넘어뜨려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상대방의 취약한 곳을 공략하라"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어라"거나 "적당하게 고집을 피우라" "전화 목소리는 낮추어라" 등의 요령 역시 타인을 굴복시켜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 책들이 다루고 있는 남·녀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여성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들에서는 대부분 외모를 가꾸는 법, 미소를 활용하는 법, 밤의 생활 등 외형적인 요인으로 상대방 남성을 공략시키는 법을 제시

최근 서점 판매대를 메우는

처세서들은 모두 철학은 없고

요령만 있을 뿐이다. 이들

책이 파악하는 세상은 전쟁터다.

모든 인간관계는 전장에서

만난 적을 넘어뜨리는 전술로

요약된다. 처세의 원론적 의미가

'세상을 사는 지혜'라면 올바른

삶에 대한 원칙적 사유가 배제된

알팍한 요령은 진정한 처세가 아니다.

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는 더 노골적이어서 '여자를 함락시키는 남자의 룰'이라거나 '여심 공략법' 등의 방법론이 등장하기도 한다. 여성들의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처세법을 제시한 책들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것은 '남자를 여성의 노예로 만드는 법' '반짝이는 눈은 적극적인 사고를 창출한다'는 식이 대부분이다.

처세와 관련하여 최근에 두드러진 경향 중의 하나는 '처세술의 세계화'다. 미국인 카네기, 머피는 고전에 속하며 빅토르 비안코같은 수수께끼의 이방인도 있다. 탈무드에서 짜깁기한 처세술도 있고, 중국 고전에서 뽑아낸 요령을 담은 책도 있다. 마빈 토케이어 같은 유대인 학자나 쇼펜하우어 같은 독일 철학자들도 처세를 이야기하도록 만들었다. 인디언들의 생활방식에서 배우는 처세도 최근 출간되었고 컨설턴트, 저술가 등 각종 직업을 지닌 일본인들은 우리 시장에 가장 많이 상륙해 있는 처세술 작가다.

## 번역서가 주류

이처럼 현재 서점에서 선보이고 있는 책들은 국내 저술보다는 외국책의 번역에 의존하고 있고, 때로는 원전을 밝히지 않은 채 외국책을 무분별하게 번역하거나 이책 저책에서 짜깁기한 혐의가 엿보이는 책도 적지 않다. 이들 책은 대개 그 모양새가 조악하기 이를 데 없고 저작권이나 판권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으며, 원작을 밝히지 않은 것은



요령만 나열한 '처세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처세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에 대해 K 출판사의 직원은 "번역이나 짜깁기의 경우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영세한 출판사에서 이런 형태의 책을 많이 낸다"고 귀띔한다. 국내 저술의 수요가 그리 많지 않고 실제 저자들도 무명작가나 역술인, 출판사 편집장 등이 주류를 이룰 만큼 이 분야의 전문가가 없는 점도 처세서 출판의 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극적인 생존전략을 주요 개념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론이 서구에서 시작된 것이니 만큼 우리에게 아직 낯설고 전문화되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 '성공을 위한 방법론'을 의미하는 처세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최우선의 가치에 두었던 70년대부터다. 그러나 그 시절 처세의 최고 덕목은 신념이나 용기, 자신감 등 정신적인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80년대에 들면서 대기업체들의 사원교육, 인재양성교육 등이 붐을 일으켰고 그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성공'을 위한 '기술'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겸손과 친절, 자기 내면에 대한 성찰과 진실된 인간관계 등 우리의 전통적인 삶의 방법론은 경쟁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제치고 살아남기 위한 가시적인 요령을 알려주지 못했고, 일찍부터 성공학이나 인간개발학이니 하는 것이 정착되어 있던 일본과 서양의 책들이 수입되기 시작한 것이 처세서 출

간의 배경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호흡이 길고 생각을 요구하는 독서보다는 빠르고 감각적인 책을 선호하는 최근의 독서경향도 철학은 배제되고 알팍한 요령만 남은 처세서들을 양산하는 요인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시형 박사(강북 삼성병원 정신과)는 최근 처세서들은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인격이나 삶의 철학보다는 부나 지위, 명예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이 곧 성공의 잣대가 되는 우리 사회의 풍토가 이러한 처세서들을 낳았고, 대학입시나 입사시험, 입사후에도 지속되는 경쟁의 분위기도 빠르게, 수월하게 남보다 앞서 나가는 요령을 제시한다는 처세서에 대한 관심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인정이나 도의로만 해결하기 힘들어진 복잡한 인간관계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치관의 변화와 행동이나 습관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처세의 원론적인 의미가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한다면 어느 시기이나 처세는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와는 문화와 전통이 다른 외국의 경쟁기술을 베끼거나 '올바른 삶'에 대한 원칙적인 사유가 배제된 알팍한 요령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처세서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맞는 삶의 철학을 담은 새로운 '처세론'을 담은 책이다. —박남정 기자